



서울테크노파크지부

성명서

윤종욱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 직원들만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기관장을 규탄한다.

서울테크노파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구성원들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솔선수범해야 할 윤종욱 원장은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테크노파크 윤종욱 원장의 무책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사회는 서울테크노파크를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란다.

1.

기관장 취임 일 년, 윤종욱 원장은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중장기 및 단기 전략 제시와 중앙부처, 지자체 협력 등 대외활동이 미진했다. 기관장 취임 후에 하기로 공약했던 경영목표와 경영전략 제시는 온데간데 없다. 입주기업 성장률 110% 이상, 사업규모 전년 대비 10%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업, 혁신형 기업육성,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성과 중심 경영혁신은 그냥 메아리가 되었다.

2.

그것 뿐 이라면 오히려 다행이다. 기관장인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구성원들을 독려하기는커녕 윤종욱 원장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오히려 감시하기에 급급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독단적인 인사, 무분별한 부서 개편과 인력운영, 무소통 경영, 근무태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테크노파크 구성원들을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구성원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결실을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무능한 원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함께 회사를 제자리에 올려놓을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원장이지 윤종욱 원장과 같은 먹튀 행태를 일삼는 기관장이 아니다.

3.

자신만 생각하는 원장, 그는 더 이상 서울테크노파크 기관장이 아니다. 2024년 5월,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긴급재정을 위한 직원 투표를 진행했다. 재단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임금인상 동결 뿐만 아니라 임금 삭감까지 단행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기관장의 희생은 없었다. 본인은 ‘업무추진비 감축’과 ‘임금동결’ 그리고 ‘관용차량 반납’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 해명이다. 오히려 직원들의 희생으로 모아진 돈과 몇 년간 축적해 온 수익금을 소진하는 동안 기관장은 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제 기본재산 적립금까지 소진하여 본인의 임기까지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4.

정작 앞으로가 걱정이다. 2024년 하반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으니, 2025년에도 살림은 나아질 수 없다. 내년에도 회사의 경영난을 핑계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기관장 본인의 임기까지 기본재산적립금을 소진한 이후에 퇴임한다면 수년간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본인을 희생한 수많은 서울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은 머지않아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5.

윤종욱 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을 획책하지 말라. 윤종욱 원장은 이번에 개최될 이사회에 ① 입주기업 임대료 인상 ② 25년 사업부서 신규사업 성과(운영위원회 자료내 69억원)를 근거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7억을 기본재산적립금의 보통재산으로 편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

사업부서 신규수주 사업이 70억원이라면 기본재산적립금을 7억원이나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연초에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이사회에 의결하였어야 한다.

이는 명백히 ‘돈이 생기면’ 별 노력하지 않고 임기를 완료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장비수익금마저 사용되는 동안 어떤 해결노력도 하지 않은 기관장을 어떻게 믿고 기본재산적립금마저 내어줄 수 있겠는가?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경영위기를 심화시킨 윤종욱 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서울테크노파크는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서울테크노파크의 모든 구성원은 재단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테크노파크 경영위기 해결에 이사회, 서울시, 중기부도 적극 나서 문제해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4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테크노파크본부
서울테크노파크 지부